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분석

권혜숙[†] · 심은아^{*}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The Types of Color Coordin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Hae-Sook Kwon[†] · Eun-A Shim^{*}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4. 10. 9. 접수; 11. 24. 채택)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olor coordination typ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emale fashion by reviewing 'pre-a-porter Collections' of four collections (i.e., cities) - Paris, Milan, New York, London - from the periods of 2000 S/S to 2002/3 A/W.

Through the review of various books and articles written on the subject, the color coordination type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and defined.

The data was collected by reviewing 'pre-a-porter Collections' magazine and total 4,269 observations were made. These in turn were categorized into eight color coordination and three color tone categori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analyse the dat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were 8 observable color coordination categories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The most used color coordination was chromatic & achromatic color coordination. It was followed by chromatic identical, and then by achromatic identical color coordination. These three color coordinations were the majority, comprising 73.4% of the total. The rest were in the order of complementary, gradation, similarity, accent. And the most used tone type was contrasting tone and followed by similar and identical.

Next, the analysis of each coordination categories shows that;

The chromatic identical coordination focused on presenting its own unity or break it using the contrasting color tone. Meanwhile, the achromatic identical coordination project a clean and strong feeling through black and white combination or a subtle feeling through the different material combination. The chromatic & achromatic coordination showed strong colors and contrasting tones of clear and bright colors. Meanwhile,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mentary coordinations are that these coordinations seem to free the colors and show the subtle changes in tones very clearly. The gradation coordination was used to create a cool and lively feeling. Next, the similarity coordination seems to create feminine and warm feeling by taking advantage of similar color feelings, often through the use of warm to warm, cool to cool color matching. Lastly, the accent coordination, through the use of contrasting tones emphasizes the differences in colors, while separation coordination mostly uses black and white on various color coordinations.

Key Words: Color Coordination (색상 코디네이션), Color tone Coordination (색채톤에 의한 코디네이션),
Types of Color Coordination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I. 서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다양화 되고 차별화 되어 패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호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더불어 현대 패션에서는 남과 다르게 개성적으로 의복을 착용하는 센스 있는 감각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의복 및 액세서리 등을 나름대로 개성 있게 조화시켜 입는 방식인 패션 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¹⁾²⁾

색은 현대 문화 시각 정보의 중요한 구성인자로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옷맵시 감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하다.³⁾⁴⁾ 이러한 색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의복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색상이 배색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배색의 색채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미지는 단색에서 느끼는 감정의 합 이상의 것으로 지각되는 감정을 전달한다. 따라서 의복에서는 단색이 지니는 이미지보다는 배색에 따른 이미지가 중요하다.⁵⁾⁶⁾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패션의 색채의 기호도나 유행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패션에서의 코디네이션에 관한 몇몇 연구들도 주로 이미지나 메이크업에 관한 내용들이며 패션 배색에 대한 연구 역시 색채 감성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에 대한 이해는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을 연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에 불구하고 문헌마다 다양한 유형들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들로 서로 다르게 언급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색채 코디네이션이 어떠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은 어떠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아울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봄으

로써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 연구와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채에 대한 이해

(1) 색채의 종류

색채는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뉘어 진다. 무채색은 흰색과 여러 단계의 회색 및 검정색에 속하는 색채를 느낄 수 없는 무색광각의 색으로, 명도의 차이만 있지 색상, 채도는 없는 것이다.⁷⁾

한편, 유채색은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으로 색채를 느끼는 유색광각을 말한다. 즉,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색 등과 그 중간색은 물론, 이러한 색들의 색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유채색으로 볼 수 있다.⁸⁾

(2) 색의 삼속성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색이 결정되며, 이것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한다.⁹⁾

색상(Hue)이란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색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의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¹⁰⁾ 이 용어는 "색채"란 용어와 자주 혼동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색상은 단일한 하나의 고유한 색을 의미하고 색채는 그것을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변화시킨 것이다.¹¹⁾

명도(Value)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면셀 색체계의 색상면에서는 무채색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흑색은 0, 이상적인 백색은 10으로 하고 그 사이는 회색으로 되어 있으나 실용화된 색표에서는 이상적인 흑과 백은 불가능하므로, 9.5에서 1.0을 사용한다. 유채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경우, 유채색의 밝음의 감각이 무채색의 기준과 동등한 곳의 명도기호를 사용한다.¹²⁾

채도(Chroma)는 색의 순수한 정도 즉, 색의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색상

¹Corresponding author ; Hea-Sook Kwon

Tel. +82-10-6201-0838, Fax. +82-41-550-5206

E-mail : kwon1004@hanmail.net

환에 나타난 색은 순색으로 회색이 가해질수록 탁해진다.¹³⁾ 채도의 단계는 14단계로 가장 낮은 단계의 채도가 1이며 가장 높은 것이 14이다. 채도의 단계는 색상마다 다른데, 증명도의 색상은 단계의 폭이 크고, 고명도는 채도차의 폭이 좁다. 색입체에서 보면 중심축인 무채색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채도번호가 높아진다.¹⁴⁾¹⁵⁾

(3) 색채론

색채에는 각각 명암, 농담, 순수함, 탁함이라는 색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색의 상태가 있는데, 이 색조를 톤(tone)이라고 한다. 톤은 일상생활의 느낌으로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이다. 우리가 색을 지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지각하게 된다.¹⁶⁾¹⁷⁾¹⁸⁾

일본색연배색체계(PCCS)의 톤 분류법이 가장 대표적인 톤분류법으로 톤별로 색상을 분류하고 있다. 톤 분류법은 색상과 톤 2가지로 색채를 다루기 때문에 색채조화에서 색의 3속성에 의한 것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¹⁹⁾ 톤의 특징을 살린 배색형식을 분류하면 크게, 동일한 톤에 의한 조화, 유사한 톤에 의한 조화, 그리고 대조톤에 의한 조화로 분류될 수 있다.²⁰⁾

2. 색채 코디네이션의 개념

코디네이션이란, 조정, 일치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두 종류 이상의 것을 대등함 속에서 각각의 다른 개체를 서로 조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²¹⁾

의복 디자인 시에는 한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함께 사용하는 데,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화시키는 것을 배색이라고 한다.²²⁾ 배색을 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배색의 원리 혹은 색채조화의 원리가 있다.²³⁾

색채조화란 두 색 내지, 그 이상의 색들의 관련 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²⁴⁾ 여러 가지 색채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색상환에서의 색들을 조화시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²⁵⁾ 이러한 색채조화의 개념은 의상에서의 배색에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색채 코디네이션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돋보이게 하

거나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색채 코디네이션은 '배색의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색채 코디네이션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규정은 없지만, 색상을 사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색채 코디네이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²⁷⁾

3. 색채 코디네이션의 종류

(1) 색상에 의한 코디네이션

색채 조화와 패션 코디네이션, 색채 배색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들은 크게 다음의 6가지 유형들로 나눌 수 있다.

1) 동일색상(identity)코디네이션

색상환에서의 색은 같고 명도나 채도의 변화를 준 배색 방법이다.²⁸⁾ 조화가 잘 되고 싫증이 나지 않는 반면, 배색의 변화가 적고 특징이 없어 보이는 단점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동일 색상코디네이션을 이루려면 명도대비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²⁹⁾

2) 유사색상(similarity)코디네이션

색상환에서 주조색과 이웃해 있는 색상들을 조화시키는 코디네이션이다. 이 배색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색을 가진다. 예를 들면 노랑이라는 공통색상을 가지는 유사색상 배색에는 연두, 노랑, 노랑기의 주황, 다홍 등을 배색할 수 있다.³⁰⁾³¹⁾ 공통색으로 쉽게 조화를 이루며 배색의 효과가 크고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동일색상 조화에 비해 덜 단조로운 장점이 있다.³²⁾ 반면, 시각적으로 활기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3) 대조 색상(contrast) 코디네이션

색상환에서 반대편 위치에 있거나 색상간의 거리가 먼 색들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코디네이션으로, 유사조화에 비하여 어려운 배색이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미적으로 우수하고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고, 현대 감각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³³⁾

여기에는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색채를 이용한 보색 코디네이션, 보색의 양옆에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조화를 피하는 인접보색(분보색 조화) 코디네이션, 그리고 60°에서 90, 120°에 위치한 색상들과 같이 반대쪽은 아니지만 분보색 조화보다 더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비조화를 이루는 중보색조화(중차보색) 코디네이션이 있다.³⁴⁾

4) 그라데이션(gradation) 코디네이션

동색을 단계적으로 톤의 변화를 주거나 색상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리듬감과 역동감을 주는 배색 방법이다. 예를 들면, 동색 계열의 색을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키던가,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단계적 색상을 배색하는 것 등이다.³⁵⁾³⁶⁾ 그라데이션 속에 강한색, 약한색의 콘트라스트를 주면 더욱 다이내믹한 리듬의 효과, 배색 전체의 통일감 있는 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⁷⁾

5) 세퍼레이션(Separation) 코디네이션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할 때, 분리색을 하나 삼입하여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대조색상 코디네이션의 강렬함을 완화시키거나 동일색상 혹은 유사색상 코디네이션의 단조로움을 흥미 있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즉, 지나치게 강렬한 배색이나 비슷한 색상들끼리의 배색 사이에 분리색인 모노톤의 검정색이나 회색을 끼워 넣으면 색상 간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여 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³⁸⁾³⁹⁾

6) 악센트(Accent)코디네이션

배색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넣는 배색으로, 단조로운 배색이나 복잡한 색에 대조적인 색상이나 대조적인 톤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강조색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다. 색의 분량은 세퍼레이션 색상보다 소량인 경우가 많다.⁴⁰⁾⁴¹⁾

(2) 색채톤에 의한 코디네이션

톤의 분류는 미국의 ISCC-NBS와 일본 색채연구소가 제안한 톤 분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중 일본색연배색체계(PCCS: Practical Colour

Coordinate)는 무채색 축을 제외한 12개의 톤으로 색채를 분류하여 복식 디자인에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⁴²⁾

일본색채연구소(PCCS)의 톤의 특징을 살펴 배색의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동일조화는「색상의 동일조화에 의한 조화, 톤의 동일에 의한 조화」, 유사조화는「색상의 유사조화에 의한 조화, 톤의 유사에 의한 조화」, 대조조화는「색상의 대조조화에 의한 조화, 톤의 대조에 의한 조화」로 분류한다.⁴³⁾⁴⁴⁾

1) 동일톤에 의한 색채조화

동일톤의 배색은 색상이 다르더라도 채도의 공통성으로 색채조화가 용이하다.⁴⁵⁾ PCCS와 오스발트 시스템에서는 다른 색상끼리도 채도의 값이 같은 색끼리는 지각적으로 선명한 느낌이 일치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먼셀 시스템에서는 채도의 값이 같더라도 색상이 다르면 지각적인 선명한 느낌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다른 색상의 배색에서는 채도 기호에 의지하는 색 선택이 어렵다.⁴⁶⁾

2) 유사톤에 의한 색채조화

유사톤이란 바로 이웃한 톤으로 가로와 채도축이나 세로와 명도축, 혹은 대각선상에 가까이 위치한 색조끼리의 배색이다.⁴⁷⁾⁴⁸⁾

3) 대조톤에 의한 색채조화

상호의 톤이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명도나 채도 또는 명도와 채도 모두가 동시에 대조적 관계의 배색이다.⁴⁹⁾ 형태색과 바탕색, 강조색과 기초색 등과 같이 관계가 분명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배색으로 모두 대비효과가 강조된 관계가 특징이다.⁵⁰⁾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자료의 선정기준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 전문 잡지 선정 기준은 (1)발행연도가 연속성이 있으며 (2)발행 부수가 안정적이며 (3)세계 유행의 흐름 속에서 트렌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4)미래에도 패션 전문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 전문 잡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의하여 해외 컬렉션을 가장 많이 보여준 컬렉션 (COLLECTIONS)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범위는 2000년 S/S부터 2002-2003 A/W까지 총 3년 동안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3년 동안에 출간된 S/S 3권씩, A/W 3권씩 총 18권 가운데 4대 패션 중심지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⁵¹⁾

2. 분석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대상의 선정기준은 첫째, 색상배합은 2색상 배색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과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경우는 2색 이상의 배색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의상은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 하 혹은 안팎이 서로 상이한 색상인 경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동일한 색상이더라도 칼라나 포켓 등의 디테일에 다른 색상이 배색되어 있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동일한 하나의 색상이 사용되었다더라도 각 아이템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색상처럼 보이는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소재에 패턴이나 분양으로 인하여 혹은 의복에 붙어 있는 구슬이나 비즈,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특정한 색으로 파악하기 힘들거나 모호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측정 도구

측정 도구로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 규격(KS A 0062-71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준하여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섬유 산업체나 교육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색채를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연구의 단계와 과정은 연구자외 의상 전공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1)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파악을 위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헌들에 나와 있는 색채 배합과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을 살펴본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하나의 코디네이션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류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6개의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들 -동일, 유사, 대조, 악센트, 그라데이션, 세퍼레이션 -로 선정되었다.

둘째, 분석대상 18권 중 무작위로 2권을 선정하여 이 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위에서 설정된 6개의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들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 때, 유형별 구분이 난해하거나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기 어려운 디자인들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코디네이션 유형 분류가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하면서, 코디네이션의 유형들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채색들끼리의 배합은 동일색상에 의한 코디네이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일 색상의 유채색 배합과는 이미지가 상이하었으므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항목은 유채색끼리의 동일 코디네이션과 무채색끼리의 동일 코디네이션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채색과 무채색과의 배합은 기존의 분석유목 항목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웠으므로 독립된 또 하나의 새로운 분석 유목으로 첨가하였다. 그리고 대조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경우, 색채에 의한 대조의 범위가 한가지로 분류하기에

는 다소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대조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중간대조, 인접대조 그리고 보색대조의 3가지 유형들로 세분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총 10개 항목의 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들이 분석유목으로 선정되었다.

(2) 본 연구에 사용될 색상과 톤의 유형별 선정은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색들과 명도, 채도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기준들을 선택하였다;

첫째, 유채색에서의 동일색상 선정은 18권의 분석대상 중 무작위로 2권을 선정하여, 그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54개의 유채색을 코디네이션의 유형에 따라 파악해본 결과, 동일색상에서의 색도차 1.25 정도는 두 색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구별해 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프린트물상에서의 색 차이를 감안해 볼 때 동일색상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유채색에서의 동일색상은 총 40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동일색상 이외의 유채색은 한국표준색도감에 나타난 10색상환을 기준으로 연구에 적용하였다. 무채색의 경우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흰색에서 검정까지의 단계 모두를 무채색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될 톤의 단계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나타난 명도와 채도의 분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앞에서 선정된 40개의 유채색들 중 무작위로 7개의 유채색을 선택하여 각 색상들의 등색상면 분포를 중심으로 동일, 유사, 대조의 3단계 톤차이를 확실히 지각할 수 있는 톤의 단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동일톤은 명도 10도에서 채도 010~020, 유사톤은 명도 20도~50, 채도 020~080, 대조톤은 명도 60에서 그 이상, 채도 100에서 그 이상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이때, 무채색의 경우는 명도만 존재하는 것으로 명도만을 중심으로 톤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셋째, 무작위로 2권의 컬렉션지를 선정하여 그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설정된 색상과 톤의 범위와 앞에서 선정된 10개의 색상 코디네이

션 유형을 적용하여 각 유목별로 분류하여보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류된 유목들이 분석하려는 내용의 항목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한 가지 내용 항목이 다른 유목에 동시에 중복되게 분류됨이 없이 오직 한 가지 유목에만 해당되도록 유목화 되어 있고, 그리고 유목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파악되었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분류기준과 분석유목들을 연구에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3) 색상과 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분류는 시각적 판단만으로도 분류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시각적 판단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시각적인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난해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참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명시된 색상 비교의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5. 자료분석

분석 유목별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분류에 참여한 분석자간의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이 0.93, 유사 색상코디네이션이 0.93, 대조색상 코디네이션이 0.92,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이 0.99,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이 0.99, 악센트 코디네이션이 0.99,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이 0.96으로 나타났다. 자료 처리 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이 사용되었다.

6. 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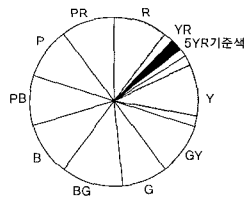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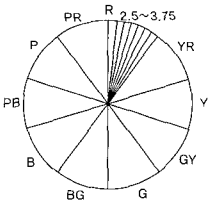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색상 - 하나의 단일 색으로 빨강(R), 노랑(Y), 녹색(G), 청색(B), 자주(P), 등의 다른 색과 구별되는 색 이름을 의미한다.
- (2) 색채 -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합한 색을 의미한다.

(3) 유채색에서의 동일 색상코디네이션
앞에서 동일색으로 분류된 40개의 색상 각각의 등색상면 내에 있는 색채간의 배합, 즉 서로 다른 명도와 채도를 가진 동일 색상간의 코디네이션을 의미한다.

(4) 무채색에서의 동일 색상코디네이션
무채색끼리의 코디네이션을 의미한다.

(5) 유사 색상코디네이션
기준색과 접해 있는 색상을 포함하여 기준색이 속해 있는 단계의 바로 옆에 위치한 색들과의 조화로. 예를 들어 기준 색상이 5YR일 경우 5YR 바로 양옆에 위치한 2.5YR과 7.5YR서부터 R(red)계열과 Y(yellow)계열 내에 속한 색상들간의 배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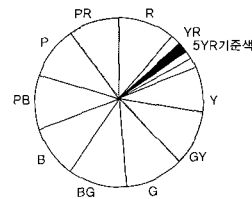
〈그림1〉 동일색상코디네이션 〈그림2〉 유사색상 코디네이션

한다. 예를 들면 R계열의 색상과 BG계열에 속한 색상과의 조화를 의미한다.

(7)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합을 의미한다.

(8) 악센트 코디네이션
본 연구에서는 칼라 라인, 허리선, 재킷의 햄라인, 소매 끝 부분, 포켓 등, 의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조적인 색상이나 대조적인 톤을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9)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
동색을 단계적으로 톤에 변화를 주는 배색이나 색상을 단계적으로 계속 배치시키는 배색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두 가지 아이템과 세 가지 아이템에서의 그라데이션 효과



〈그림3〉 중간대조색상코디네이션

(6) 대조색상 코디네이션

① 중간대조 색상코디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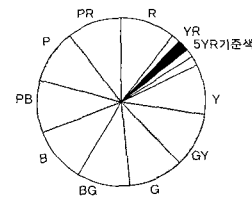
10색상환에서 기준 색상이 속해 있는 단계보다 두 단계씩 떨어진 색상환에 위치한 색 그룹으로, 예를 들어, 기준색이 YR계열일 때 양옆으로 두 단계 떨어진 RP계열이나 GY계열의 색상과의 조화를 의미한다

② 인접대조 색상코디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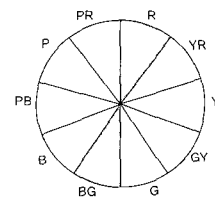
기준 색상이 속한 단계보다 양옆으로 세 단계 혹은 네 단계 떨어진 색상환에 위치한 색상들과의 배합으로, 기준색이 YR일 경우 G계열이나 BG계열 또는 P계열이나 PB계열과의 조화를 의미한다

③ 보색대조 색상코디네이션

기준색과 180° 반대쪽에 위치한 색상을 말



〈그림4〉 인접대조색상코디네이션



〈그림5〉 보색대조색상코디네이션

를 모두 포함한다.

(10)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

대비가 강한 배색의 관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유사한 색상배색의 애매한 인상을 주는 경우에 분리색으로 무채색을 삽입한 배색으로 정의한다.

(11) 동일톤

유채색에서는 두 색의 명도차가 10 이내일 때와 채도차가 010-020일 경우에, 그리고 무채색에서의 배색에서 명도차가 10 이내의 경우에 동일톤으로 간주한다.

(12) 유사톤

유채색에서는 두 색의 명도차가 20에서 50 까지, 채도차가 020에서 080까지일 경우에,

무채색의 배색에서는 명도차가 20에서 50 사이에 있을 경우에 유사톤으로 간주한다.

(13) 대조톤

유채색에서는 두 색의 명도차가 60부터 그 이상일 경우와 채도차가 100에서 그 이상일 경우에, 무채색의 배색에서는 명도차가 60 이상일 경우 대조톤으로 간주한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과 유형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1>과 같이 나타났다.

<표1>의 결과를 살펴보면, 색상 코디네이션은 총 10개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톤의 경우 3개의 코디네이션 유형에서만 동일톤이 나타나지 않았고

<표1>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빈도와 빈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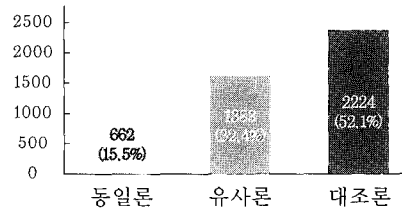
코디네이션 유형	동일톤		유사톤		대조톤		총	
	빈도	빈도율	빈도	빈도율	빈도	빈도율	빈도	빈도율
동일색상(유)	99	2.3%	590	13.8%	405	0.5%	1094	25.6%
동일색상(무)	380	8.9%	65	1.5%	487	11.4%	392	21.8%
유사색상	51	1.2%	108	2.5%	59	1.4%	218	5.1%
중간대조	35	0.8%	52	1.2%	27	0.6%	114	2.7%
인접대조	42	1.0%	63	1.5%	58	1.4%	163	3.8%
보색대조	28	0.7%	38	0.9%	46	1.1%	112	2.6%
유/무	27	0.6%	318	7.4%	767	18.0%	1112	26.0%
그라데이션	0	0.0%	112	2.6%	147	3.4%	259	6.1%
악센트	0	0.0%	25	0.6%	165	3.9%	190	4.5%
세퍼레이션	0	0.0%	12	0.3%	63	1.5%	75	1.8%
합계	662	15.5%	1385	32.4%	2224	52.1%	4269	100.0%

<표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빈도

코디네이션 유형	동일톤		유사톤		대조톤		총	
	빈도	빈도율	빈도	빈도율	빈도	빈도율	빈도	빈도율
동일색상(유)	99	2.3%	590	13.8%	405	9.5%	1094	25.6%
동일색상(무)	380	8.9%	65	1.5%	487	11.4%	932	21.8%
유사색상	51	1.2%	108	2.5%	59	1.4%	218	5.1%
대조	105	2.5%	153	3.6%	131	3.1%	389	9.1%
유/무	27	0.6%	318	7.4%	767	18.0%	1112	26.0%
그라데이션	0	0.0%	112	2.6%	147	3.4%	259	6.1%
악센트	0	0.0%	25	0.6%	165	3.9%	190	4.5%
세퍼레이션	0	0.0%	12	0.3%	63	1.5%	75	1.8%
합계	563	15.5%	793	32.4%	1819	52.1%	3175	100.0%

나머지 유형에서는 3개 톤 모두에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은 세부적으로는 총 27개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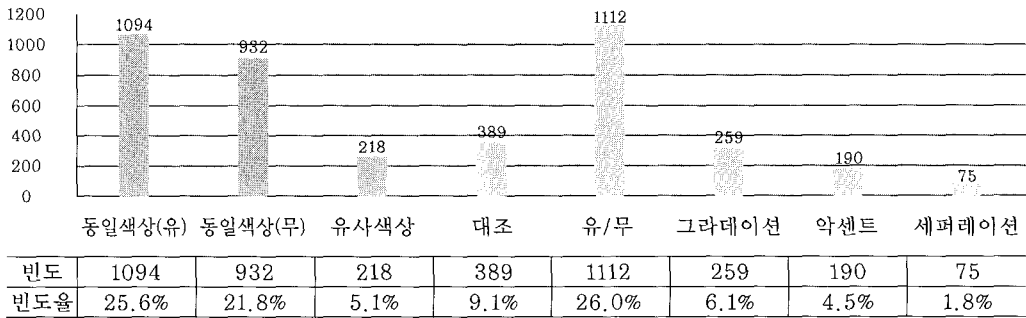
그러나 색채를 논함에 있어 색상과 톤의 두 가지 특성은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항상 공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27개 유형에 대한 각각의 언급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며, 또한 중간대조, 인접대조와 보색대조에 의한 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들은 각 유형별 빈도수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디자인들을 살펴본 결과, 색채 배합에 의한 이미지나 색채 배합의 특성이 각 유형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3개 유형을 종합하여 '대조 색상 코디네이션'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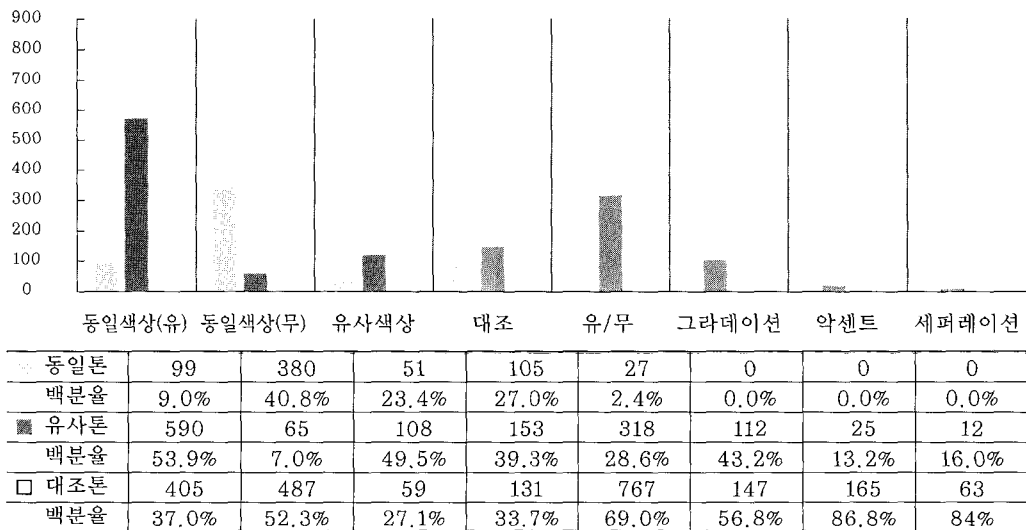
〈그림7〉 색채톤을 중심으로 본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 빈도율

단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8개의 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들과 3단계의 톤 유형을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2>과 같다.



〈그림6〉 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별 빈도와 빈도율



〈그림8〉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별 톤의 발생 빈도와 빈도율

<표2>의 결과를 색상코디네이션 유형을 중심으로 빈도와 빈도율을 살펴보면, 유채색과 무채색 코디네이션이 1112개(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1094개(25.6%), 세 번째로는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932개(21.8%)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조 색상 코디네이션이 389개(9.1%),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이 259개(6.1%), 유사색상 코디네이션이 218개(5.1%), 악센트 코디네이션이 190개(4.5%),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이 75개(1.8%)로 나타났다.<그림 6>

이 중 3개 유형의 색상 코디네이션 - 유채색과 무채색 코디네이션과 2개 유형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 이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된 현대 여성 패션에서는 대체로 배색이 편안하고 용이한 색상 배합 방식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2>에 나타난 결과를 색채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조톤은 2224개(52%)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이 유사톤 1383개(32%), 동일톤이 662개(16%)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된 현대 패션에서의 색채톤은 강한 대조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7>

<표2>에 나타난 결과를 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별 톤의 발생 빈도와 빈도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가 <그림8>에 나타나 있다. <그림8>에 나타난 결과와 분석대상 자료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살펴본



<그림11> 동일(무) 동일톤
00 S/S N.Y



<그림12> 동일(무) 대조톤
00 S/S N.Y

결과를 종합하여 본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색상에 의한 코디네이션의 색채 사용의 특성은 유채색끼리와 무채색끼리의 코디네이션의 경우에서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톤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유채색의 경우 유사톤(53.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조톤(37.0%), 그리고 동일톤(9.0%)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채색의 경우에는 대조톤(52.3%)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일톤(40.8%)이 많았으며 유사톤(7.0%)은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동일색상을 유사한 톤들로 배합함으로써 무난하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으로 통일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거나, 채도차나 명도차를 크게 한 대조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으로 동일색상끼리의 코디네이션에서 올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이미지를 보다 흥미 있고 선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9,10>

반면 무채색의 경우는 톤의 확연한 대비를 통한



<그림9> 동일색상 유사톤
01/02 S/S London



<그림10> 동일색상 대조톤
01/02 A/W Paris



<그림13> 유무 대조톤
00 S/S N.Y



〈그림14〉 중간대조 유사톤
02/03 A/W Milan



〈그림15〉 인접대조 동일톤
00 S/S M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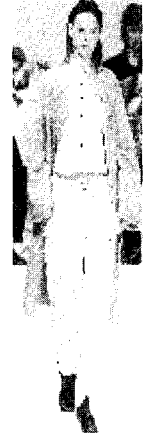


〈그림16〉 보색대조 유사톤
02 S/S Paris

강한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혹은 동일함을 소재의 변화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12>

(2)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은 대조톤(56.8%)에 의한 코디네이션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사톤(28.6%), 그리고 동일톤(2.4%)의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서의 색채 배합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채색은 주로 검정색과 흰색이 많이 보였고, 검정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비비드 하거나 브라이트 한 유

채색과 매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흰색은 다크 하거나 디프한 유채색 혹은 비비드 한 유채색과의 배합을 주로 이루고 있어, 강렬한 대조에 의한 배합 방식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13> 그러므로 현대 패션에서의 유채색과 무채색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강렬한 색상과 대조적인 색채톤에 의한 배합으로 밝고 선명하며 화려함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7〉 그라데이션 유사톤
02/03 A/W London

(3) 대조색상 코디네이션은 유사톤(39.3%), 대조톤(33.7%), 동일톤(27.0%)의 순으로 나타났고, 3가지 세부 코디네이션의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대조와 인접대조는 유사톤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보색대조는 대조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색상들간의 대조가 강하여 질수록 색채톤의 차이도 많이 나도록 배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톤(153개), 대조톤(131개), 동일톤(105개)의 순으로, 톤 유형에 따른 빈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에 사용된 색상들은 난색과 한색, 밝은 색과



〈그림18〉 유사색상 동일톤
00 S/S London



〈그림19〉 유사색상 유사톤
01/02 A/W Paris



〈그림20〉 악센트 대조톤
00/01 S/S Milan



〈그림21〉 악센트 유사톤
02/03 A/W Milan



〈그림22〉 세퍼레이션 대조톤
02/03 S/S Paris

어두운 색 등 모두를 배합에 사용하면 저명도와 고명도의 배합 등을 사용하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색상들은 찬색과 따뜻한 색, 노랑과 파랑의 코디네이션에서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보라와 노랑과 같은 중성색과 따뜻한 색과의 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배합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조 색상 코디네이션들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화려하고 강렬하며 선명하고 자극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14,15,16>

(4)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은 대조톤(56.8%), 유

사톤(43.2%)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성은 색상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선택되고 톤은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으로 점이 해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강렬하고 다이나믹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리듬감과 변화로 세련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7>

(5) 유사색상 코디네이션은 유사톤(49.5%)이 가장 많았고, 대조톤(27.1%)과 동일톤(23.4%)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톤 끼리의 코디네이션은 유사톤 보다는 좀더 소프트하면서 온화하고 좀더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강한 반면, 대조톤은 강해 보이는 느낌이나 대조적인 느낌이 있으나 유사색상 코디네이션 특성상 어느 정도 공통적인 색기운으로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림18,19>

(6) 악센트 코디네이션은 대조톤(86.8%)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유사톤은(13.2%)로 아주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것은 악센트 코디네이션의 특성상 색채간의 분명한 차이로 보여줌으로써 악센트가 될 수 있도록 대조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코디네이션은 평범하거나 단조로운 색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강한 색의 대조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으로 주로 보여주고 있었고 반면, 유사톤에서의 악센트 효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강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20,21>

(7)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은 대조톤(84.0%), 유사톤(16.0%)순으로 나타났다. 유사 색상 코디네이션에서 무채색을 사용한 것들도 다소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지나치게 강렬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을 완화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2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0년 봄, 여름(S/S)부터 2002/03년 가을, 겨울(A/W)까지 컬렉션지에 나타난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이 8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유형별 빈도순으로 언급해보면, 유채색과 무채색 코디네이션,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대조 색상코디네이션(중간대조, 인접대조, 보색대조),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유사색상 코디네이션, 악센트 코디네이션 그리고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 이었다. 또한 톤에 의한 코디네이션 유형은 대조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유사톤, 동일톤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 여성 패션의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유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동일함에서 오는 고유한 통일감을 살리도록 유사톤의 범위에서 색을 배합하거나, 동일한 색상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톤의 차이를 크게 하여 이미지를 보다 흥미 있고 선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검정과 흰색의 배색 등과 같은 톤의 확연한 대비를 통한 강하고 깔끔하며 선명한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소재의 변화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의 경우 무채색은 주로 흰색과 검정 위주로 나타났다. 배색은 흰색에는 다크한 톤의 유채색을 그리고 검정에는 비비드한 유채색을 배합하여 강렬한 색상과 대조적인 색채톤에 의한 배합으로 밝고 선명하며 화려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유형들- 유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은 전체 색상 코디네이션의 발생 빈도의 73.5%를 차지하여 조사된 현대 패션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주도적인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로 나타났다.

대조색상의 코디네이션은 대조적인 색상을 유사한 톤으로 배합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인 색상에 대조톤으로 되어 화려하고 강렬하며 선명하고 자극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 가장 다양한

색채들의 배합이 보이고 있는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그라데이션 코디네이션은 색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선택되었고, 톤은 전체적으로는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으로 전이하는 대조성을 지닌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색상의 공통성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리듬감과 변화를 지닌 세련된 이미지를 보이고 있었다.

악센트 코디네이션은 강렬한 대비 효과를 무채색을 삽입하여 줌으로써 지나치게 강렬할 수 있는 효과를 완화시켜 주는 양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흰색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현대 여성 패션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은 8개의 유형들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방법의 코디네이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고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시각적 효과도 다양하고 톤을 사용하는 방식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가지 유형의 색상 코디네이션 중 무채색과 유채색의 코디네이션과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이 전체의 73%, 대조톤에 의한 색채배합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의 성향은 다양한 색상 배합을 시도하기 보다는 색상배합이 비교적 용이하고 무난하면서도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색상배합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톤 사용에 있어서도 강한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편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톤의 단계를 3 단계로만 제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보다 많은 톤의 단계가 가능하며 실제로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은 위에서 언급된 색상 배합 방식의 제한성을 매우 다양한 톤으로의 변화를 함께 시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색채 코디네이션들을 창출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많은 관련 서적들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패션 디자인에서의 색채사용과 배색 방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활용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허갑섭, 이경화 (1999). 패션 연출 방법에 관한연구.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23(1), pp.55-56.
- 2) 이경순, 김희섭 (2000).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10.
- 3) 장보경 (1998).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4) 오희선, 박화순 (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코디. 서울: 경춘사, p.21.
- 5) 유송옥 (1997). 복식의장학. 수학사, p.241.
- 6) 이경순, 김희섭 (2000). Op. cit., p.126.
- 7) Grandis, Ligina De (1986). *Theory and Use of Colour*. NY: Harry, N., Abrams, Inc., p.35; 장보경 (1998).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Op. cit., p.5.
- 8) 유태순, 조기여, 배현숙, 이화순, 신지현, 김영란 (2000). 색채학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성화, p.19.
- 9) 이호정 (1987). 복식디자인. 교학연구사, p.77.
- 10) 다나 후이지, 임경숙 역 (1991). 패션 코디네이션과 이미지칼라진단. (주)그래픽사, p.9.
- 11) 우시우스웅, 유관호 옮김 (1999). 색채 디자인의 원리. 서울: 도서출판 청우, p.49.
- 12)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 디자인과 색채. 전원문화사, p.25.
- 13) 유송옥 (1997). Op. cit., p.214.
- 14) 조필교, 정혜민 (1998). Op. cit. p.26.
- 15) 전선정, 최희정, 이귀영, 양선미, 문운경 (2000). 토털 코디네이션. 청구 문화사, p.97.
- 16) 신상옥, 오경화, 이선희, 나영주 (2001). 현대 패션과 의생활. 서울: 교문사, p.132.
- 17) 오희선, 박화순 (2000). Op. cit., p.26.
- 18) 박필재, 백숙자 (2001). 컬러 코디네이션을 위한 색채학 입문. 향설 출판사, p.39.
- 19) 정해정 (2003). 컬러코디네이션. 도서출판국제, p.33.
- 20) 조필교, 정혜민 (1998). Op. cit., p.118.
- 21) 이인자, 신효정 지음 (2000). 패션마케팅& 코디네이션. (주)시공사, p.52.
- 22) 신상옥 외 (2001). Op. cit., p.135.
- 23) 전선정 외 (2000). Op. cit., p.110.
- 24) 요하네스 이튼 저, 김수석 역 (1983). 색채의예술. 지구문화사, p.25.
- 25) 장애란, 안명숙, 박우미 (2000). 패션 코디네이션. 예학사, p.51.
- 26) 김영신 (2001).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형설 출판사, p.20.
- 27) 오희선, 박화순 (2000). Op. cit., p.34.
- 28) 전선정 외 (2000). Op. cit., p.111.
- 29) 권혜숙, 황선진, 권혜옥, 김 윤 (2004).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수학사, p.85.
- 30) Ibid., pp.90-91.
- 31) 김영신 (2001). Op. cit., p.51.
- 32) 이은영 (2000).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183.
- 33) 권혜숙 외 (2004). Op. cit., p.85.
- 34) 유태순 외 (1999). Op. cit., pp.91-92.
- 35) 장애란 외 (2000). Op. cit., p.54.
- 36) 오희선, 박화순 (2000). Op. cit., p.40.
- 37) 이경순, 김희섭 (2000). Op. cit., p.161.
- 38) 양리나, 최나영 (2000). 패션 연출. 문왕사, pp.61-62.
- 39) 장애란 외 (2000). Op. cit., p.52.
- 40) 오희선, 박화순 (2000). Op. cit., p.40.
- 41) 양리나, 최나영 (2000). Op. cit., p.62.
- 42) 이은영 (2000). Op. cit., pp.170-171.
- 43) 조필교, 정혜민 (1998). Op. cit., p.118.
- 44) 박필재, 백숙자 (2001). Op. cit., p.89.
- 45) 전선정 외 (2000). Op. cit., p.113.
- 46) 조필교, 정혜민 (1997). Op. cit., pp.119-120.
- 47) 전선정 외 (1999). Op. cit., p.113.
- 48) 조필교, 정혜민 (1997). Op. cit., p.120.
- 49) Ibid., p.121.
- 50) 박필재, 백숙자 (2001). Op. cit., p.91.
- 51) Collection. '00/01, S/S I,II,III, A/W I,II,III, '01/02, S/S I,II,III, A/W I,II,III, '02/03, S/S I,II,III, A/W I,II,III.